

1시민 1행복 1예술을 누리다

“여권, 여유 있게 미리 발급”

익산예술의전당, 고품격 기획공연 · 맞춤형 전시회 ·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풍성

익산시, 지난해 여권 발급 5배 증가... 정부24로 온라인 재발급 가능

익산시가 전 시민 행복찾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1시민 1예술'을 통한 시민 문화 행복생활권을 구축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익산예술의전당은 올해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수준 높은 기획전시회를 비롯해 창의적 예술교육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생활화에 나선다.

특히 공연 전시의 질적 향상과 시민 참여형 예술 활동, 지역 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의 참여로 일석산조의 효과를 도모해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단 등 3개 단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은 각 단별 정기 공연과 시민과 시립예술단이 함께하는 '다이로움 콘서트', '찾아가는 예술 무대 행복 플러스' 등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자부심을 높여준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 제작을 강화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동협력 사업 등 국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계획 중이다.

한편 올해는 공연의 격을 높여간다. 기획공연 라인업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대형 뮤지컬과 영극 리베라 소년합창단, 발레 지젤, 피아니스트 선우예린 리사이틀 등 국내외 정상급 공연으로 구성했다. 자체 제작 콘서트 사운드 포레스트

익산, 어린이·가족 관객을 위한 '모여라 댕댕댕',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등 선호도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시의 경우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장르의 시민 맞춤형 전시에 나선다.

3월에는 한국미술협회 익산 작가들을 초대해 분과(장르)별 작품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북도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유치와 소장품 전시(4월), 익산의 아름다운 만경강을 표현한 작품 전시(7월)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 예술 감상 욕구도 급증하고 있어 익산 예술의전당이 이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겨울방학까지 걸쳐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권 발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발급량은 1만526건으로 전년 2021년말 1,874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여권 신청은 178건에 머물렀던 것이 11월부터는 월 2천 건이 넘는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발급량 폭증으로 인해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2배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신청 후 4~5일 후 여권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8~9일 이후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해 여권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발급 받은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기존 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구여권(녹색 여권) 신청 시에만 발급이 지연되었으나 신여권(차세대 전자여권) 또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을 여유 있게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여권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으로 1명당 10~15분가량 소요되고 있으며 점심시간 교대근무 이후에는 1시간 이상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기존에 여권을 발급한 성인이라면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으로 대기시간 없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선 익산예술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을 유치해 시민들이 수도권권 우수 전시 관람과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5개 강좌 총 100회의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운영해 지역민과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한다.

소묘와 드로잉 수채화 아크릴 등 성인 서양화 수업을 비롯해 민화와 정물 인물 등 성인 한국화 수업, 핸드메이드 라탄 성인 공예 수업, 오감 자극 어린이 조형 수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교육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없이 전 시민 문화예술 향유로 폭을 넓힌다.

전국 최초 익산청년시청, '청년정책 허브' 도약

전대식 부시장 청년시청 시설 방문... 청년 소통창구 ·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독려

익산시가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이 전국 대표 청년 종합정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대식 부시장은 청년시청을 방문해 층별로 시설을 방문하고, 청년시청 관계자들에게 청년 소통창구 ·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독려했다.

전 부시장은 "청년시청이 지난 12월 개청해 새해를 맞아 본격적 운영에 돌입했다"며 "지역 청년들의 취 · 창업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까지 전방위적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시청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한다. 올해 1월부터 청년 인턴 3명을 선발 · 채용하고 소통창구를 통해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취업부터 창업 주거 문제까지 촘촘한 지원망을 안내하며 청년들의 갈증 해소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총 4층 규모인 청년시청은 문화 · 취업 · 창업 ·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우선 창업지원공간으로 창업제품 홍보를 위한 촬영공간 '스마트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기업들의 입주 '창업공간' 16실 등이 구축돼 예비 청년 창업인들의 지원에 나선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실', 대관전용 '커뮤니티실'과 '상담실'을 갖춰 각

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공공증 해소와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한 청년민원실 '마이DREAM'과 북카페 '청춘', '청년 아지트' 등으로 청년들의 문화와 삶을 응원하는 행정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대식 부시장은 "지역의 가장 큰 주춧돌이 될 청년들이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통시장 문화 · 쇼핑 등 활성화 지원

군산시가 전통시장에 문화체험 쇼핑, 관광이 어우러지도록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지역 문화체험과 쇼핑, 관광이 어우러지며 고객 증대 및 매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전통시장 외곽외곽 시장가오래, 화재공예 지원, 장보기 도우미 지원, 문화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그 성과로 시는 지난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중기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에 기존 지원사업 외에 시장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해 실제 지역 시장이 갖는 특수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객선 지키기를 비롯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문화체험과 관광, 쇼핑이 어우러져야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특수성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소식통

군산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군산시는 10일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신청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분까지 주수로 두고 있는 경우차에 부과된다. 연납분 부과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영등도서관, 가족 책 전집대출 서비스 운영

익산영등도서관은 유아·아동 및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회원을 대상으로 '전집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집 대출 서비스는 가정 내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서관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30~50여 권의 전집 1세트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영등도서관은 '공동 대출이 과학 동화', '다독다독 언어', '책보의 지구별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전집 20세트를 선정해, 올해 총 6차로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집대출' 탭에서 원하는 전집을 신청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0일간 대여할 수 있다.

올해 1차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영등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습관 형성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